부모가 자녀의 TV시청시간에 미치는 영향 :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TV시청시간을 중심으로

김우찬* · 이윤석**

초 록

TV시청행위는 대부분의 산업국가 10대 청소년들에게 보편적인 여가행위이다. 텔레비전은 청소년들에게 역기능과 순기능을 동시에 한다. 이러한 TV시청시간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TV시청행위는 큰 영향을 준다고 한다. 그러나 이전 연구는 일부 연령대나 특정 지역의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왜곡 가능성이 높은 직접 보고(self-report) 방식으로 모은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본 연구는 통계청이 2004년 실시한 생활시간자료를 분석하여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TV시청시간이 10대 청소년의 TV시청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그리고 부모의 TV시청시간이 많을수록 자녀의 TV시청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석 결과는 자녀양육에 있어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 차이가 있음을 암시한다. 어머니가 자녀의 사회화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데 비해 아버지는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주로 맡는다.

주제어 :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자녀의 TV시청시간, 자녀양육, 생활시간 조사

* 낄슨 컴퍼니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신저자, yslee@uos.ac.kr(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90, 02-2210-5664, 010-5505-3354)

I. 서 론

TV시청행위는 대부분의 산업국가 10대 청소년들에게 보편적인 여가행위이다(Larson, R.W & Verma, S, 1999). 우리나라도 통계청에서 실시한 『생활시간 조사』를 통해 대부분의 청소년이 TV를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V시청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텔레비전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는 달리 경험적 연구들은 역기능 못지않게 순기능도 존재한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과도한 TV시청은 청소년의 학업성취(Vandewater, E. A. et al. 2006)와 육체적·지적인 발달(Hardy, L. L. et al. 2006a)에 부정적이라는 데에는 대부분의 연구들이 동의하고 있다. 지나친 TV 시청으로 공부시간이 줄어들어 학업성적이 저해되거나 독서와 육체적인 활동이 감소하여 건강과 지적인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함의를 지닌 TV시청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Anderson, D.R, et al. 2001; Chowhan, J and Stewart, J, M. 2007; Yalin, S.S. et al. 2002; 김정기 2000). 이 연구들은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부모의 성향이 사회화과정을 통해 자녀에게 이어져 자녀의 여가활동을 결정짓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모의 소득은 자녀의 긍정적인 발달을 위한 투자와 관련되며, 부모의 소득이 많을수록 자녀의 TV시청시간이 그 이외의 행위(예: 공부시간, 독서시간 등)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아진다(Bianchi and Robinon, 1997). 그리고 어머니의 취업은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을 감소시켜, 자녀의 TV시청행위에 대한 감독과 통제가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다(Marchena, 2005). 이러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TV시청시간과의 관계는 기존 연구를 통해서 그 영향력이 밝혀졌다. (Anderson, D. R. et al. 2001; Chowhan and Stewart 2007; Yalçin, S.S. et al. 2002).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방법론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이 연구들은 전체 10대가 아닌 일부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다면(Chowhan, J and Stewart, J. M. 2007; Wright, J.C, et al. 2001; Vandewater, E.A, et al. 2006; 김정기, 1998; 최우희·강은희, 1997), 왜곡 가능성이 높은 직접 보고(self-report)에 의한 자료를 바탕으로(김정기, 1998; 최우희·강은희, 1997) 결론을 내렸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방법론적인 문제점을

뛰어넘기 위해 통계청이 2004년 실시한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1)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2) 부모의 TV시청시간이 10대 자녀의 TV시청시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본 자료는 전국의 10세 이상 인구 약 3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특히 시간측정에 기준으로 이용되는 시간일지(time-diary) 자료이기 때문에 다양한 행위에 투입된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본 자료는 이전 연구들이 갖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서 신뢰할 수 있는 결론에 이르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방법론적 장점과 함께 본 연구는 TV시청시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모의 특징을 알려줌으로써 자녀의 텔레비전 시간을 더 생산적인 행위에 투자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 및 선행연구

1. TV시청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산업국가의 청소년들은 매일 약 1.5-2.5시간의 TV시청시간을 갖는다(Robinson and Godbey, 1997). 보편적인 여가행위로 자리 잡은 TV시청이 청소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되어왔다. 많은 연구들이 TV 시청은 청소년에게 역기능과 순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TV시청의 역기능을 지적하는 대표적인 분야는 소아학(pediatric)이다. 소아학은 TV시청을 건강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Yalçin, S.S. et al. 2002; Hardy, L.L. et al. 2006a). TV시청이 앉아서 하는 활동(sedentary activity)의 전형적인 사례이며 비만의 원인이 되는 간식(스낵)섭취와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심리학에서는 TV시청을 공격성과 같은 부정적인 심리상태와 관련하여 연구한 경우(Chowhan, J and Stewart, J. M. 2007)와 인지 능력과의 관계를 연구(Hofferth, S.L. and Sandberg, J.F. 2001; McHale, S.M., et al. 2001)한 경우가 있었다. 이들은 TV시청이 친사회적(pro-social) 행동보다 공격적인 행위를 일으키며, 언어능력과 인지능력을 저해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교육학이나 사회학에서는 TV시청이 학업성적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Sharif, I. and Sargent, J.D. 2006). 또한 TV시청이 청소년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예: 독서)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Vandewater, E.A, et al. 2006; Verma, S. and Larson, R.W. 2002).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텔레비전이 뚜렷이 즐길 여가 시설이나 기회가 없는 청소년들에게 큰 위안거리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Kubey and Larson, 1990). 어릴 때부터 공부와 입시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은 텔레비전을 보면서 잠시라도 현실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급우나 친구와 사회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텔레비전은 일상에 바쁘고 지친 가족구성원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Dempsey, 2005). 더 이상 아침이나 저녁을 먹는 자리가 가족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아닌 한국 가족에게 TV는 거의 유일하게 부모와 자녀가 한자리에 앉아 서로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

이렇게 역기능과 순기능을 동시에 담당하는 텔레비전을 한국의 학부모들은 대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높은 교육열과 대학입시에 맞추어진 교육환경 속에서 학부모들은 학업에 방해가 되는 행위들을 줄이거나 통제하고 싶어 한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TV 시청 시간을 설명하려는 연구들은 부모의 여러 가지 특징에 초점을 맞춘다. 그 중에서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TV 시청 시간이 중요한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2.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TV시청시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자녀의 TV시청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모가 자신의 의식을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황석규, 2004: 215)이며, 이렇게 형성된 부모의 의식은 자녀의 사회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보통 교육수준, 소득, 직업을 통해 측정한다.

1)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교육수준은 자녀의 사회화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고려대상이다. 부모는 자녀의 사회화과정에서 중요한 타자(significant other)이며 역할모델이 되는데(Hardy, L.L.

et al. 2006b), 부모의 양육태도나 일상습관은 부모의 교육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대중 매체 사용과 관련하여 Anderson(2001)은 교육수준이 높은 부모일수록 TV시청보다 책이나 신문과 같은 매체의 이용이 많을 것이라는 주장하였으며, Hofferth와 Sandberg(2001)는 독서시간이 많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¹⁾.

이러한 논의를 확장하면 부모의 교육 수준에 따라 자녀의 텔레비전 시청 시간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부모는 자녀의 지적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택한다. 특히나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의 교육적 성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언어적·문화적 능력을 물려주고 싶어한다(김경근·변수용, 2007). 이를 위해 자녀의 독서를 지도하거나 공부를 봐주기도 하고 자녀의 컴퓨터 게임과 TV보는 행위를 감독하거나 통제한다(황석규, 2004: 216). 지적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은 부모의 교육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지적 활동에 지장이 된다는 믿어지는 활동을 억제하고 반대로 지적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믿어지는 활동을 장려하기 때문이다(Lareau, 2003).

2) 부모의 소득

부모의 소득은 자녀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행위를 위한 투자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 Chowhan과 Stewart(2007: 1325-1326)의 연구를 보면, 부모의 소득을 자녀가 긍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기반으로 보았으며 따라서 부모의 소득이 많을수록 자녀 행위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다른 연구(Krosnick, J.A., et al. 2003: 92)는 청소년이 향유하는 오락거리(영화 관람, 동물원 입장 등) 중에는 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소득 가정의 자녀는 이러한 오락거리를 향유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또한 그러한 가정은 게임도구나 장난감을 구입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두 연구의 논의는 부모의 소득이 많을수록 자녀에게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할 수 있으며 따라서 TV시청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긍정적인 행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

1) 또한 교육수준이 높은 부모일수록 자녀의 건강증진에 더 관심을 가지거나(Hardy, L.L. et al. 2006; 3), 자녀 양육과 관련된 더 많은 정보를 가진다(Chowhan, J and Stewart, J. M. 2007: 1327)는 주장이 있다.

수 있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결국 부모의 수입과 자녀의 TV 시청 시간은 반비례의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3) 부모의 취업 및 직업

부모의 취업 및 직업은 가구소득을 증대시켜 자녀에게 긍정적인 자원을 제공할 토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자녀의 일상생활을 감독하거나 통제한다는 측면에선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감소시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부모와 자녀의 공유 시간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부모와 자녀관계를 유지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하지만 서로간의 요구사항이나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조차도 파악하기 어려울 만큼 접촉기회가 제한된다면, 자녀의 인성과 학교생활에 여러 가지 장애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이런 점에서 특히 어머니의 취업은 자녀의 인성과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정태인·유홍준, 269: 274). 어머니의 주당 근무시간이 자녀의 학업성취 및 교육적 자극과 부(-)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이옥, 1996: 32, 재인용)는 이러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가 된다. 따라서 부모 특히 어머니의 취업은 자녀의 부정적인 행위에 대한 감독과 통제의 맥락에서 자녀의 TV시청행위와 관련될 수 있다.

3. 부모의 TV시청시간

자녀들은 부모의 행동이나 태도를 다양한 과정을 거쳐 배우게 된다. 자녀들은 부모의 일상을 통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게 된다. TV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자녀들은 텔레비전을 포함한 여가 활동을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우게 된다. 여가 활동에 대한 연구들은 청소년의 여가활동이 어린 시절의 사회화와 학교 교육에 의해서 길러진 취향이나 성향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이러한 주장이 가능한 이유는 모든 여가활동이 누구나 즉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식을 습득하고 익숙해야 참여할 수 있는 여가활동이 있는데, 박물관 관람, 미술관 관람, 음악회 참석, 독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따라서 여가활동은 단순한 오락행위가 아니라 문화적 실천이며, 여가활동에 대한 문화적 욕구나 취향은 양육과 교육에 의해 길러지는 것이다(조광익, 2006). 취학 전의 아동이 가지는 TV시청성향이 이후에 청소년의 TV시

청성향(시청시간과 프로그램 종류)을 예측하는 변수임을 밝혀낸 연구(Anderson, D.R., et al. 2001)는 TV시청성향에 있어 어린 시절 사회화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적용하면 부모의 TV시청시간이 길수록 자녀의 TV시청 시간도 길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외국의 연구는 이러한 예상을 지지하고 있다. 부모의 TV시청 시간과 자녀의 TV시청시간이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Hardy, L.L. et al. 2006b; Yalçın, S.S. et al. 2002)가 있어 부모의 TV시청습관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4. 이전 연구의 정리

이전 연구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TV시청시간을 자녀의 TV시청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았다. Chowhan과 Stewart(2007)는 자녀의 TV시청시간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관계를 밝혀냈으며, Anderson(2001)은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기의 TV시청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Hardy(2006)는 2시간 이상 TV를 시청하는 어머니를 가진 자녀일수록 2시간 이상 TV를 시청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렇지만 이전 연구들은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많은 연구들이 10대 청소년 중 일부만을(예를 들어 중학생만을 또는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다(Chowhan, J and Stewart, J. M. 2007; Wright, J.C, et al. 2001; Vandewater, E.A, et al. 2006; 김정기, 1998; 최우희·강은희, 1997) 그러나 한국의 청소년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학교와 학원에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고 대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감소한다(오만석, 2005). 이에 따라 텔레비전 앞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 역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영향 역시 학급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둘째, 몇몇 연구들은 전국이 아닌 특정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Cherney, I.D. and London, K. 2006; 김정기, 1998; 최우희·강은희, 1997). 그러나 지역에 따라 여가 시설이나 기회가 매우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 셋째, 일부 연구는 TV 시청

시간을 청소년들에게 직접 물어서 측정하였다(김정기, 1998; 최우희·강은희, 1997) 이러한 직접 보고(self-report)에 의한 시간 측정치들이 사회적 규범편향(social desirability)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Csikszentmihalyi and Larson, 1987; Kamo, 2000). 특히 이러한 문제점은 텔레비전 시청 같이 부정적으로 간주되는 행위에 매우 심하다. 이러한 문제점은 전국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샘플을 이용해야 하며 또한 직접 보고가 아닌 시간 일지(time-diary) 자료를 분석해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자료 및 대상

본 연구는 통계청이 2004년에 실시한 제2차 『생활시간 조사』를 분석하였다. 『생활시간 조사』는 통계청이 국민의 생활방식과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1999년부터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 전국 조사 자료이다. 제2차 『생활시간 조사』는 2004년 9월 2일부터 13일까지 12일간 조사되었고, 조사대상가구의 모든 10세 이상 가구원이 이틀간 자신의 행동을 일기 쓰듯이 시간일지(time-diary)에 직접 기입하는 조사방법(after-coded diary)을 사용하였다. 최종 표본은 표본규모는 전국 12,651가구의 만 10세 이상 가구원 31,634명이다. 시간일지에 기록된 행동유형은 대분류(9개), 중분류(50개), 소분류(137개)로 구분되어 있다.

본 연구는 10세 이상인 응답자 중 조사 당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제 2차 『생활시간 조사』의 원자료에서 확인된 10대 청소년은 재학생 4,815명, 중퇴생 11명, 휴학생 7명이었다. 이 중 실제 분석에 사용된 것은 재학생 4,815명 중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조사에 참여한 3,816명이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비율은 각각 35.0%(N=1,334), 34.9%(N=1,333), 30.1%(N=1,149)이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각각 54.2%(N=723)와 45.8%(N=611), 52.4%(N=699)와 47.6%(N=634), 53.1%(N=610)와 46.9%(N=539)이다.

조사 대상 대부분(94.0%)이 도시지역에 살고 있으며 과반수(53.4%)가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457명(12.0%), 광역시가 1467명(38.4%), 기타지역이 1892명(49.6%)이다.

『생활시간 조사』의 연구 대상자들은 모두 이틀간의 시간사용을 보고하였다. 손애리(2000: 144)는 이 이틀 치의 보고를 비교하고 첫째 날보다 둘째 날의 시간일지 작성성이 보다 성실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둘째 날 조사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첫째 날 조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또 이틀 치의 조사를 모두 대상으로 해본 결과 어떤 경우든지 최종 결과는 같음을 알 수 있었다.

2. 변수의 설명

1) 청소년의 특성

분석에서 사용된 청소년들의 특징은 성별, 연령, 학교 수준, 지역, 요일이다. 성별은 남학생을 기준범주로 한 가변수를 사용하였으며 연령은 연속변수를 채택하였다. 학교 수준은 청소년이 초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를 구별한다. 지역은 청소년들의 주거지를 서울, 광역시, 기타로 구분한다. 마지막으로 요일은 분석에서 사용된 요일로 평일이 2274명(59.6%), 토요일이 796명(20.9%), 일요일이 746명(19.5%)이었다.

2) 부모의 특성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교육수준, 직업, 소득을 통해 측정한다. 모든 응답자들은 '교육 정도'를 묻는 질문과 '수학 여부'를 묻는 질문을 받는다. 교육수준은 이 두 문항을 함께 고려하여 계산한 교육년수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졸업은 6년, 중학교 졸업은 9년, 고등학교 졸업은 12년, 전문대학교 졸업은 14년, 4년제 대학 졸업은 16년으로 계산하였고 휴학과 중퇴는 중간값을 취하였다. 부모의 직업은 8개의 범주를 4개의 범주로 축소하고 직업이 없는 사례를 무직으로 추가하여 총 5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각 범주의 내용을 보면, 관리 및 전문직은 의회의원, 고위공무원, 관리

자와 다양한 전문직을 포함하며, 사무직은 기술공 및 준전문가와 사무종사자로 이루어졌다. 서비스판매직은 처음 조사된 범주인 서비스 판매직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육체노동직은 농림어업 및 숙련업, 기능원 및 관련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 기타종사자로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무직은 일주일간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이 없는 경우이다. 부모의 소득은 한달간의 수입을 의미하며 10점 척도를 응답범주로 사용하였다. 가장 적은 범주는 50만원 미만이며 가장 많은 범주는 500만원 이상이다. 수입을 목적으로 한 노동이 없는 경우와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는 '0'으로 대처하였다.

〈표 1〉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기초적인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표 1〉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변수 기초 분포

변 수			
교육년수	아버지	12.9 (2.8)	
	어머니	12.0 (2.4)	
소득	아버지	4.9 (2.4)	
	어머니	1.4 (1.8)	
직업	아버지	관리·전문직	13.2
		사무직	22.7
		서비스판매직	14.5
		육체노동직	45.1
		무직	4.5
		전체	100.0
	어머니	관리·전문직	4.1
		사무직	10.1
		서비스판매직	29.5
		육체노동직	21.3
		무직	35.1
		전체	100.0

주1) 연속변수인 교육연수와 소득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였고, 범주형 변수인 직업은 각 집단별 비율을 제시하였다.

주2) 소득의 응답범주는 1 “50만원 미만” 2 “50만원-100만원”, 3 “100만원-150만원” 4 “150만원-200만원” 5 “200만원-250만원” 이다.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 연수 평균값이 각각 12.9년과 12.0

년이므로 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평균학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을 보면, 아버지의 평균소득이 200만원이 안 되는 정도, 어머니의 평균소득이 50만원과 100만원사이로 아버지의 평균소득이 대략 3배에서 4배 정도 높았다. 직업을 보면, 아버지의 직업은 전문직이 505명(13.2%), 사무직이 866명(22.7%), 서비스판매직이 553명(14.5%), 육체노동직이 1720명(45.1%), 무직이 172명(4.5%)으로 육체노동직이 가장 많았고 어머니의 직업은 전문직이 156명(4.1%), 사무직이 387명(10.1%), 서비스판매직이 1124명(29.5%), 육체노동직이 811명(21.3%), 무직이 1338명(35.1%)으로 무직이 가장 많았다.

IV. 분석결과

1. 자녀와 부모의 TV시청시간

1) 자녀의 TV시청시간

〈표 2〉는 청소년의 평일, 토요일, 일요일의 TV시청시간을 학급과 성별로 나누어 행위자 비율과 행위자 평균시간의 분포를 제시하고 있다. 표에서 행위자 비율은 특정 행동을 하루 24시간 중 10분 이상 한 사람의 비율을 의미하며 행위자 평균시간은 특정 행동을 하루 24시간 중 10분 이상 한 사람들만의 평균시간을 나타낸다. 행위자 비율은 특정 행위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하는지를 보여주며 행위자 평균시간은 사람들이 특정 행위를 하게 되면 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지를 보여준다.

<표 2> 자녀의 요일, 학급, 성별에 따른 TV시청시간

			평일 (n=814)	토요일 (n=285)	일요일 (n=235)
초등학생	전체	전체평균시간(분)	73.4	130.4	207.8
		행위자비율(%)	84.4	90.9	97.4
		행위자평균시간(분)	87.0	143.5	213.3
	남학생	전체평균시간(분)	70.3	122.6	210.2
		행위자비율(%)	81.6	88.2	97.8
		행위자평균시간(분)	86.1	139.0	214.9
	여학생	전체평균시간(분)	77.0	139.5	204.7
		행위자비율(%)	87.6	93.9	97.0
		행위자평균시간(분)	88.0	148.5	211.0
			평일 (n=781)	토요일 (n=281)	일요일 (n=271)
중학생	전체	전체평균시간(분)	52.5	133.1	187.1
		행위자비율(%)	68.9	93.2	97.0
		행위자평균시간(분)	76.2	142.7	192.8
	남학생	전체평균시간(분)	48.8	129.7	174.8
		행위자비율(%)	66.3	92.1	99.3
		행위자평균시간(분)	73.6	140.9	176.0
	여학생	전체평균시간(분)	56.5	136.9	201.2
		행위자비율(%)	71.7	94.6	94.4
		행위자평균시간(분)	78.7	144.7	213.0
			평일 (n=679)	토요일 (n=230)	일요일 (n=240)
고등학생	전체	전체평균시간(분)	31.6	90.1	137.6
		행위자비율(%)	49.2	77.8	84.2
		행위자평균시간(분)	64.3	115.8	163.5
	남학생	전체평균시간(분)	29.6	98.3	131.7
		행위자비율(%)	47.8	80.5	82.5
		행위자평균시간(분)	62.0	122.1	159.6
	여학생	전체평균시간(분)	33.9	82.2	145.5
		행위자비율(%)	50.8	75.2	86.4
		행위자평균시간(분)	66.7	109.3	168.4

전체적인 TV시청시간을 보면, 요일과 학급, 성별과 관계없이 대부분의 집단이 1시간 이상의 TV시청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TV시청시간은 청소년의 TV 시청시간을 하루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로 본 국내의 다른 연구(김정기, 1998; 김수정, 2000; 최우희·강은희, 1997) 결과와 유사하다. 이는 지난 10여 년 동안 청소년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또한 집에 있어도 인터넷이나 컴퓨터에 보내는 시간이 늘었음을 생각해 보면 놀라운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여전히 텔레비전은 청소년의 중요한 여가 수단 중 하나이며 또한 그만큼 집에서 다른 행위(예를 들어 가족 간 대화 등)에 쓰이는 시간이 줄어들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연구도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북부 아메리카와 유럽, 그리고 동아시아의 국가의 청소년들 역시 하루에 약 1.5-2.5시간의 TV 시청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Larson, R.W & Verma, S, 1999).

요일로 나뉘보면 평일보다 토요일, 토요일보다 일요일의 행위자비율과 행위자평균 시간이 높고 많았다. 특히 요일에 따른 행위자비율의 차이는 고등학생(평일 : 49.2% → 토요일 : 77.8% → 일요일 : 84.2%)이 가장 컸다. 주말의 TV시청시간이 많다는 연구결과 역시 기존연구와 유사하다. 국내의 다른 연구(김수정, 2000; 최우희·강은희, 1997)도 주말의 시청시간이 약 1시간 정도 많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미국의 연구 역시 비슷하게 평일보다 주말(토요일과 일요일)의 TV 시청시간이 많다고 보고하고 있다(Wright, J.C, et al. 2001).

학급에 따른 TV시청시간을 보면,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올라갈수록 행위자비율과 행위자평균시간이 감소하였다. 행위자비율의 차이는 평일(초등 : 84.4% → 중등 : 68.9% → 고등 : 49.2%)에 가장 두드러졌으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상대적으로 학급에 따른 차이가 적었다. 이러한 결과는 김수정의 연구(김수정, 2000)에서도 나타난다. 그는 미디어 서비스 코리아(MSK)의 시청률 자료를 사용하여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의 시청시간을 분석하였는데, 평일의 경우 30분, 주말의 경우 8분 정도 초등학생의 시청시간이 중고등학생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성별 차이를 보자. 같은 학급에서 성별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의 경우 평일에는 남학생은 70.3분을 여학생은 77.0분을 텔레비전 앞에서 보내고 있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평일에는 남학생은 29.6분을 여학생은 33.9분을 TV를 보면서 보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경주시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최우희

와 강은희의 연구(최우희·강은희, 1997)에서도 나타났다. 2000년 이후 해외의 연구결과를 보면,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TV 시청시간이 더 많다는(Yalcin, S.S. et al. 2002; Larson, R.W. et al. 2001; Anderson, D.R., et al. 2001)연구가 있었지만, 성별간의 차이가 없다(Wright, J.C, et al. 2001; Cherney, I.D. and London, K. 2006; Krosnick, J.A., et al. 2003)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었다.

2) 부모의 TV시청시간

〈표 3〉는 자녀의 학급과 요일에 따른 부모의 TV시청시간을 행위자 비율과 행위자 평균시간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표 3〉 자녀의 학급과 요일에 따른 부모의 TV시청시간

			평일 (n=814)	토요일 (n=285)	일요일 (n=235)
초등학교 부모	아버지	전체평균시간(분)	90.2	110.2	180.5
		행위자비율(%)	85.4	83.5	93.2
		행위자평균시간(분)	105.7	131.9	193.7
	어머니	전체평균시간(분)	93.5	108.8	147.5
		행위자비율(%)	85.0	86.0	91.5
		행위자평균시간(분)	110.0	126.5	161.2
			평일 (n=781)	토요일 (n=281)	일요일 (n=271)
중학교 부모	아버지	전체평균시간(분)	97.0	121.5	201.2
		행위자비율(%)	85.4	88.3	91.9
		행위자평균시간(분)	113.5	137.6	219.0
	어머니	전체평균시간(분)	98.4	123.5	145.4
		행위자비율(%)	84.6	88.6	91.5
		행위자평균시간(분)	116.3	139.4	158.9
			평일 (n=679)	토요일 (n=230)	일요일 (n=240)
고등학교 부모	아버지	전체평균시간(분)	104.6	110.8	200.0
		행위자비율(%)	89.1	82.2	92.1
		행위자평균시간(분)	117.4	134.8	217.2
	어머니	전체평균시간(분)	107.1	116.2	150.4
		행위자비율(%)	85.1	90.4	93.3
		행위자평균시간(분)	125.8	128.5	161.2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학급에서 평일보다 토요일, 토요일보다 일요일의 행위자평균시간이 가장 많았고, 행위자비율 또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녀의 TV시청시간이 요일과 학급에 따라 크게 변하는 반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TV시청시간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2.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TV시청시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TV 시청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녀의 TV 시청시간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녀의 특징을 통제하고 부모의 교육, 수입, 직업을 주요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표 4>은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4>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TV시청시간에 미치는 영향

		자녀의 TV 시청 시간							
		평일		토요일		일요일			
		비표준화 회귀계수	p-값	비표준화 회귀계수	p-값	비표준화 회귀계수	p-값		
통제변수	성별	남학생(기준)							
		여학생		6,449 (.004)		6,456 (.317)		14,370 (.097)	
	학급	초등(기준)							
		중등		-22,928 (.000)		.657 (.931)		-23,144 (.028)	
		고등		-46,557 (.000)		-44,236 (.000)		-76,792 (.000)	
	지역	기타(기준)							
서울		3,257 (.378)		20,581 (.066)		10,841 (.412)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변수	교육년수	아버지		1,006 (.108)		1,690 (.333)		.593 (.798)	
		어머니		-4,113 (.000)		-5,054 (.007)		-3,677 (.145)	
	소득	아버지		-1,498 (.016)		-5,776 (.001)		-.221 (.926)	
		어머니		.654 (.467)		-.867 (.723)		-6,778 (.069)	

			자녀의 TV 시청 시간					
			평일		토요일		일요일	
			비표준화 회귀계수	p-값	비표준화 회귀계수	p-값	비표준화 회귀계수	p-값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변수	부의 직업	육체노동직(기준)						
		무직	5.202 (.419)		-21.540 (.217)		-4.163 (.849)	
		전문직	-4.272 (.323)		-15.621 (.220)		14.485 (.387)	
		사무직	-7.968 (.018)		-.864 (.928)		1.857 (.880)	
		서비스판매직	-2.210 (.530)		-8.118 (.433)		20.921 (.188)	
	모의 직업	무직(기준)						
		전문직	3.007 (.694)		4.798 (.812)		18.215 (.549)	
		사무직	-1.838 (.687)		10.020 (.455)		26.872 (.109)	
		서비스판매직	1.309 (.715)		23.041 (.025)		36.222 (.012)	
		육체노동직	-1.383 (.701)		.137 (.990)		56.550 (.000)	
N			2274		796		746	
F(p)			19.63 (.000)		5.32 (.000)		4.74 (.000)	
R²			.129		.104		.100	

부모의 교육수준이 자녀의 텔레비전 시청 시간에 대해 기존 연구는 일관성있는 결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아버지와의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경우(McHale, S.M., et al. 2001), 부모의 학력이 모두 아무런 영향을 가지지 않다고 보고한 경우(Yalcin, S.S. et al. 2002), 어머니의 교육수준만이 영향을 준다고 보고한 경우(Chowhan, J and Stewart, J. M. 2007)가 있었다. 2004년에 조사된 생활시간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경우는 어머니의 학력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수준 중 어머니의 교육수준만 자녀의 평일과 토요일 TV시청시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어머니의 교육연수가 1년 올라감에 따라 청소년의 TV 시청시간은 평일과 토요일에 각각 4분과 5분 정도가 줄어든다.

부모의 소득에 대해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아버지와 어머니의 소득을 따로 변수로 활용하지 않았고 가구 전체 소득을 변수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연구에 따르면 가구

소득이 많을수록 자녀들의 TV 시청시간은 줄어들거나(Chowhan, J and Stewart, J. M. 2007; McHale, S.M., et al. 2001; Hofferth, S.L. and Sandberg, J.F. 2001), 별다른 관련이 없었다(Larson, R.W. et al. 2001; Krosnick, J.A., et al. 2003).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본 연구에 따르면 어머니의 소득은 자녀의 텔레비전 시청 시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지만 아버지의 소득이 평일과 토요일에 자녀가 TV 보는 시간에 영향을 주었다. 아버지의 소득이 50만원(소득의 한 단계 차이) 정도 늘어나면 자녀의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평일에는 1.5분 정도 그리고 토요일에는 5분 정도 줄어든다.

아버지의 직업은 평일에만 자녀의 TV 시청시간에 영향을 미쳤으며, 육체노동자인 경우보다 사무직일 때 그 자녀의 TV시청시간이 감소하였다. 아버지가 육체노동직에 종사하는 청소년에 비해 아버지가 사무직에 근무하는 청소년은 평일에 텔레비전 앞에 7분 정도 덜 앉아 있다. 아버지의 직업을 분석한 연구(McHale, S.M., et al. 2001)를 보면, 아버지의 직업위신과 자녀의 TV시청시간이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요일의 구분이 없이 평상시의 자유시간(free time)에 대한 행동을 통해 연구되었으므로 요일에 따른 영향을 알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직업이 갖고 있는 영향이 주로 평일날 TV 시청에 나타난다고 암시하고 있다. 어머니의 직업을 보면, 평일을 제외한 토요일과 일요일에 자녀의 TV시청시간에 영향을 미쳤으며 토요일은 무직인 경우보다 서비스판매직일 때, 일요일은 무직인 경우보다 서비스판매직과 육체노동직일 때 그 자녀의 TV시청시간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그 효과는 매우 컸다. 토요일에는 어머니가 전업주부인 청소년에 비해 어머니가 서비스 또는 판매직에 종사하는 청소년은 TV를 23분이나 더 시청한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어머니가 전업주부인 청소년에 비해 어머니가 서비스 또는 판매직에 종사하는 청소년과 어머니가 육체노동직에 종사하는 청소년이 각각 텔레비전을 36분과 56분이나 더 시청하였다.

3. 부모의 TV시청행위가 자녀의 TV시청시간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함께 본 연구의 또 다른 목적은 부모의 TV 시청 시간이 자녀의 같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표 5>는 부모의 TV시청시간이 자녀의 TV시청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표 5> 부모의 TV시청시간이 자녀의 TV시청시간에 미치는 영향

		자녀의 TV 시청 시간						
		평일		토요일		일요일		
		비표준화 회귀계수	p-값	비표준화 회귀계수	p-값	비표준화 회귀계수	p-값	
통제변수	성별	남학생(기준)						
		여학생	6.502 (.004)		7.180 (.261)		13.138 (.119)	
	학급	초등(기준)						
		중등	-23.326 (.000)		-1.652 (.827)		-24.643 (.016)	
		고등	-47.528 (.000)		-45.784 (.000)		-78.153 (.000)	
	지역	기타(기준)						
서울		3.326 (.365)		17.375 (.118)		6.249 (.627)		
	광역시	-1.462 (.547)		-2.166 (.758)		9.284 (.312)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변수	교육년수	아버지	1.231 (.049)		1.397 (.420)		-.542 (.810)	
		어머니	-3.942 (.000)		-5.505 (.003)		-2.308 (.349)	
	소득	아버지	-1.291 (.037)		-5.619 (.001)		-.003 (.999)	
		어머니	1.068 (.235)		-.518 (.831)		-3.742 (.305)	
	부의 직업	육체노동직(기준)						
		무직	-1.746 (.792)		-22.448 (.207)		-1.986 (.926)	
전문직		-3.835 (.372)		-10.527 (.408)		15.861 (.330)		
사무직		-7.532 (.025)		2.705 (.777)		1.225 (.918)		
	서비스판매직	-2.427 (.488)		-3.459 (.738)		19.669 (.204)		
모의 직업	무직(기준)							
	전문직	4.070 (.595)		9.185 (.646)		19.852 (.502)		
	사무직	-.050 (.991)		15.994 (.232)		34.613 (.036)		
	서비스판매직	3.362 (.360)		27.185 (.008)		41.923 (.003)		
	육체노동직	.223 (.952)		4.895 (.643)		61.037 (.000)		
부모의 행위	TV시청 시간	아버지	.046 (.001)		.016 (.605)		.094 (.002)	
		어머니	.046 (.001)		.139 (.000)		.197 (.000)	
N			2274		796		746	
F(p)			19.09 (.000)		5.70 (.000)		6.77 (.000)	
R ²			.139		.123		.151	

대체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TV시청시간은 자녀의 TV시청시간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요일에서 이러한 관계가 들어났으나 토요일의 경우만 아버지의 TV시청시간이 자녀의 TV시청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요일은 부모와 자녀의 TV 시청시간이 강한 관련을 맺고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TV 시청 시간이 10분 늘어날 때 마다 자녀의 TV 시청 시간은 각각 약 0.1분과 2분 정도가 늘어난다. 자녀와 부모의 TV 시청 시간이 평일이나 토요일에 비해 일요일에 강한 관련을 맺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함께 TV 시청을 통해 휴일 여가를 보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Hardy(2006b)의 연구에 따르면 2시간 이상 TV시청을 하는 어머니의 자녀일수록 TV시청시간이 증가하였고, Yalcin(2002)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제의 TV시청시간과 그 자녀의 TV시청시간이 양(+)의 상관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V. 결 론

1. 연구 결과의 정리 및 함의

TV 시청은 청소년들의 삶에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연구들이 텔레비전 시청 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TV 시청시간이 의미 있는 변수로 지적되었다. 하지만 이전 연구들은 특정 지역이나 연령층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때로는 부정확한 자기기입식(self-report) 방식에 의해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어렵거나 왜곡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러한 오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전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시간량 측정이 가능한 시간일지(time diary)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전국적인 시간일지 자료를 사용하여 청소년의 TV 시청시간에 접근한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다. 다행스럽게도 1999년과 2004년에 통계청은 시간일지 조사를 전국적인 규모로 실시하였다. 이 중 최신 자료인 2004년 생활시간자료는 이전 연구들이

사용한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기에 적합하다. 본 논문은 200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TV시청시간에 대해 더 신뢰할 수 있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전국 표본을 통해 모아진 시간일지(time diary) 자료를 분석하여 부모가 자녀의 TV 시청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TV시청시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평일과 토요일의 TV시청시간이 감소하였지만,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았다. 반대로 아버지의 소득이 많을수록 자녀의 TV 시청시간은 평일과 토요일에 감소하였지만 어머니의 소득은 어떤 요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직업을 보면 어머니의 직업이 무직인 경우보다 서비스 판매직과 육체노동직인 경우에 토요일과 일요일에 자녀의 TV시청시간이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TV시청시간을 보면, 어머니의 경우, TV시청시간이 많을수록 자녀의 평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의 TV시청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는 평일과 일요일에 이러한 영향이 나타났다. 정리하자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그리고 TV 시청시간이 적을수록 자녀의 TV 시청시간이 줄어들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특징이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에 차이가 있다는 점과 일맥상통한다.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비해 자녀의 사회화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며 아버지는 어머니에 비해 자녀에게 투자자원(소득)을 제공하는 역할을 주로 한다고 알려져 있다(송유진, 2005; Park, 2006).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어머니는 텔레비전 시청을 포함한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어머니의 교육의 효과는 아마도 교육에 따라 자녀의 교육적 성공을 바라는 정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일 것이고 어머니의 직업의 효과는 어머니가 얼마나 오랜 시간을 자녀와 공유하느냐에 영향을 주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주로 경제적 자원을 책임지는 아버지의 경우 당연히 한 달 동안 벌어들이는 수입을 통해 자녀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자녀와 더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대화와 돌보는 시간까지도 더 많다는 사실에 기초한다. 어머니가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정도와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자녀의 일상에 더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상담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녀와의 대화도 부족한 실정이다. 물론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과 돌보는 시간도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더 적다. 일본 국립여성교육회관이 실시한 가

정교육에 관한 국제 비교조사결과²⁾를 보면, 한국 아버지들이 자녀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평일 하루 2.8시간으로 6개국 중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었다(중앙일보 2006년 8월 3일, 재인용). 또한 한국여성개발원이 2006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를 돌보는 시간이 어머니는 하루 평균 11시간 36분, 아버지는 1시간 17분으로 아버지의 자녀 돌보는 시간이 어머니의 약 10분의 1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일보 2007년 3월 8일, 재인용).

본 연구의 결과는 자녀의 TV시청시간을 가능한 한 줄이고자 하는 많은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몇 가지 함의를 던져주고 있다. 텔레비전은 청소년들에게 순기능과 역기능을 함께 갖고 있지만 적지 않은 부모들은 자녀들의 과도한 텔레비전 시청을 걱정하고 있다. 첫째, 과도한 텔레비전을 보는 자녀의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해 더 직접적인 통제와 간섭이 필요하다. 집에서 보내는 절대 시간이 부족한 서비스직이나 육체노동직 어머니들의 자녀들은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많다. 만약 어머니가 직장에 나가야 한다면 아버지라도 어머니를 대신해서 자녀의 일상생활에 개입해야 한다. 자녀들이 특히 TV시청시간이 많은 날은 아버지가 여유시간이 많은 토요일과 일요일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른 많은 연구들(김보금·송순, 2002; 이희영·최태진, 2007)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분발을 촉구하고 있다. 둘째, 무엇보다도 부모들 스스로가 텔레비전으로부터 멀어져야 한다. 자녀의 과도한 TV시청은 어쩌면 텔레비전을 가까이 하는 부모로부터 배운 버릇인지 모른다. 본 연구의 결과는 그러한 점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부모가 스스로 책을 잡고 야외로 나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녀들도 같은 길을 가게 될 것이다.

2. 연구의 한계점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2004년 생활시간조사는 전국의 10대 청소년들과 그들의 부모로부터 시간 일지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연구들이 갖고 있는 방법론적 한계를 극

2)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태국, 스웨덴 6개국에서 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각 1000명을 조사 대상으로 함.

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전국의 많은 응답자로부터 복잡한 정보를 모았기 때문에 변수가 그리 정밀하지 못하다. 예를 들어 월간 수입은 범주 변수를 통해 확인해야 했고 직업은 8개로 구분된 대분류 체계로만 되어 있다. 특히 직업의 경우 같은 사무직이나 서비스직 내에서도 위계나 자율성에서 차이가 큰 사람들이 뒤섞여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사용한 자료는 이런 미세한 차이를 포착해내는데 큰 한계가 있다. 이 후 연구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더 자세히 구분된 체계를 사용하여 구분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TV시청행위가 자녀의 TV 시청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부모의 역할분담을 주장하는 연구와 일관되게 나왔다. 하지만 교육 수준이나 월간 수입만을 통해 자녀양육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차이를 논의하는 것은 많은 한계를 가진다. 텔레비전 시청과 관련되어 다양한 변수를 분석해야 한다. 하지만 200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통해서도 다양한 이론적 논의를 확인할 수 없다. 시간일지 자료는 표본의 대표성이나 자료의 정확성은 뛰어나지만 응답자에게 매우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다른 설문문항을 추가하기가 어려우며 2004년 생활시간조사 역시 예외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본 논문의 한계점은 새로운 자료를 이용한 연구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자료에는 부모의 양육태도나 양육행위에 대한 변수가 전혀 없으므로 역할분담에 대한 논의는 결국 단순한 추론(speculation)에 불과하다. 새로운 자료는 아마도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녀의 텔레비전 시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텔레비전 시청에 대해 어떻게 지도하는지 등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녀들은 TV를 주로 혼자 또는 가족들과 보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즐겨 시청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료를 사용하여 시간사용과 자원배분 등을 포함해 부모의 양육 행위에 대한 연구가 나오기 까지 부모의 역할 구분에 대한 본 연구의 추론은 검증된 사실이 될 수 없다.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 분석을 통해 본 연구가 함의하는 부모의 양육 분담 명제를 확인하는 것도 의미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김경근·변수용(2007). 한국사회에서의 학업성취에 대한 문화자본의 영향. *교육사회학 연구*, 제17권 제1호.
- 김보금·송순(2002).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의 역할수행 정도와 기대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7권, pp. 17-33.
- 김수정(2000). 청소년 TV시청의 행태와 영향에 관한 연구. *정책과학연구*, 제10권.
- 김정기(1998). 청소년 시청자의 텔레비전 시청행태와 효과 연구. *한국언론학회*, 제43권 제1호.
- 손애리(2000). 시간연구의 특성과 ‘생활시간조사’ 개발과정. *조사연구*, 제1권 제1호
- 송유진(2005). 한국과 중국 도시가족에서의 성역할 분담 비교연구. *한국사회학*, 제39권 제1호.
- 오만석(2005). 한국 학생들의 일상생활에 관한 연구: 하루 시간 사용을 중심으로. 오만석, 은기수, 이윤석, 김정석 편, *한국인의 생활시간과 일상생활*. pp. 1-50. 한국학 중앙연구원.
- 이 옥(1996).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양육 및 발달에 미치는 영향. *가족학논집*, 제8권.
- 이희영·최태진(2007).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발달에 있어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의 역할. *초등교육연구*, 제20권, pp. 23-41.
- 정태인·유홍준(2002). 주부의 취업이 청소년자녀의 인성, 학업과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제13권 제1호.
- 조광익(2006). 여가 소비 양식의 분석을 위한 문화자본 이론의 적용. *관광학연구*, 제30권 제1호.
- 최우희·강은희(1997). 청소년 TV시청의 여가활동적 의의에 관한 조사연구. *아동교육*, 제6권 제1호.
- 황석규(2004). 사회화조건과 사회화동질화집단. *교육사회학연구*, 제14권 제3호.
- Anderson, D.R., et al (2001). Early childhood television viewing and adolescent behavior.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Vol. 66 No. 1.

- Bianchi, S. M. and Robinson, J. P. (1997). What did you do today? Children's use of time, family composition, and the acquisition of social capital.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 59, pp. 332-344.
- Cherney, I.D. and London, K. (2006). Gender-linked differences in the toys, television shows, computer games, and outdoor activities of 5- to 13-year-old children. *Sex Roles*, Vol. 54, pp. 9-10.
- Chowhan, J and Stewart, J. M. (2007). "Television and the behaviour of adolescents: Does socio-economic status moderate the link?". *Social Science & Medicine*. Vol. 65.
- Csikszentmihalyi, M and Larson, R. (1987).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Experience Sampling Method.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orders*, Vol. 175, pp. 526-536.
- Dempsey, N. (2005). Television use and communication within families with adolescents. In B. Schneider and L. J. Waite(Eds.), *Being together, working apart*(pp. 277-296). Cambridge Press.
- Hardy, L.L. et al. (2006a). Descriptive epistemology of small screen recreation among Australian adolescents. *Journal of Paediatrics and Child Health*, Vol. 42 No. 11.
- Hardy, L.L. et al. (2006b). Family and home correlates of television viewing in 12-13 year old adolescents: The Nepean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Nutrition and Physical Activity*, Vol. 3 No. 24.
- Hofferth, S.L. and Sandberg, J.F. (2001). How American children spend their tim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 63 No. 2.
- Kamo, Y. (2000). He said, she said: Assessing discrepancies in husbands' and wives' reports on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Social Science Research*, pp. 29-476.
- Krosnick, J.A., et al. (2003). Psychosocial predictors of heavy television viewing among preadolescents and adolescents.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 25 No. 2.

- Kubey, R. and Larson, R. (1990). The use and experience of the new video media among children and young adolescents. *Communication Research, Vol. 17*, pp. 107-130.
- Larson, R. W. and Verman, S. (1999). How children and adolescents spend time across the world: Work, play, and development opportunities. *Psychological Bulletin, Vol. 125 No. 6*, pp. 701-736.
- Larson, R.W. et al. (2001). How urban African American young adolescents spend their time: Time budgets for locations, activities, and companionship.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29 No. 4*.
- Lareau, A. (2003). *Unequal childhoo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Marchena, E. (2005). Adolescents' assessments of parental role management in dual-earner families. In B. Schneider and L. J. Waite(Eds.), *Being together, working apart*(pp. 333-360). Cambridge Press.
- McHale, S.M., et al. (2001). Free-time activities in middle childhood: Links with adjustment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Vol. 72 No. 6*.
- Park, S. J. (2006). *The retreat from formal schooling: "Educational manager mothers" in the private after-school market of South Korea*. Unpublished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 Robinson, J. P. and Godbey, G. (1997). *Time for life: The surprising ways Americans use their time*. Penn State University Press.
- Sharif, I. and Sargent, J.D. (2006). Association between television, movie, and video game exposure and school performance. *Pediatrics, Vol. 118 No. 4*.
- Vandewater, E.A, et al. (2006). Time well spent? Relating television use to children's free-time activities. *Pediatrics, Vol. 117 No. 2*.
- Verma, S. and Larson, R.W. (2002). Television in Indian adolescents' lives: A member of the famil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31 No. 3*.
- Wright, J.C, et al. (2001). American children's use of electronic media in 1997: A

national survey.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22 No. 1.
Yalçin, S.S. et al. (2002). Factors that affect television viewing time in preschool
and primary schoolchildren. *Pediatrics International*, Vol. 44 No. 6.

중앙일보 2006. 8. 3일자 기사: 한국가정에는 아빠가 없다?

중앙일보 2007. 3. 8일자 기사: 아이 돌보는 시간 10배 차이 “아빠도 엄마 좀 도와주세요”

ABSTRACT

Parental Influences on Children's TV Watching Time : Parental Socioeconomic Status and TV Watching Time

Kim, Woo-Chan* · Lee, Yun-Suk**

Most children watch TV in industrialized countries. Watching TV may have both detrimental and beneficial effects upon teenagers. A great deal of research has been done to examine the factors which potentially affect children's TV watching time and have concluded that parental socioeconomic status and TV watching time are very significant. However, previous studies are methodologically flawed in that (1) they focus on only limited age ranges of children from certain areas or (2) they examine self-reported data that are often biased. Using the data from a sample of 3,816 teenagers of the 2004 National Time Use Study, this study attempts to test whether parental socioeconomic status and TV watching time influence children's TV watching time. We find that the higher parental socioeconomic status is, the less time their children spend watching TV. Moreover, the more time parents spend watching TV themselves, the more time their children also spend watching TV. Our results imply that there is division of labor in children-rearing between mothers and fathers. It seems that mothers are directly involved in children's socialization while fathers may provide their children with some economic stability and resources.

Key Words : parental socioeconomic status, children's TV watching time,
rearing of children, time use survey

투고일 : 9월 10일, 심사일 : 12월 15일, 심사완료일 : 12월 24일

---

* The Nielsen Company

** Department of Urban Sociology, University of Seoul